

## 주요 내용

### ■ 주가 1,000포인트대 진입의 배경과 시사점 ■

#### 주가 1,000포인트대 진입 상황

- 과거 89, 94년의 1,000 포인트 진입시와 비교할 때, 지금은 경기 정점이 아닌 경기 회복의 초기이며, 한계기업 및 금융기관의 퇴출 등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으며, 금리 수준이 현저하게 낮은 상황에서의 1,000포인트대 진입임

#### 배경과 특징

- (주요 배경) 정부의 증시 활황책, 구조조정에 대한 국내외의 긍정적인 평가, 기업의 실적 호전 및 저금리로 인한 증시로의 자금유입 등이 주요 원인임
- (대세 상승세) 증시 완전 개방, 기업 및 금융기관 투명성 증대, 신규 펀드 도입 및 사이버 증시 대중화 등 새로운 증시구조를 바탕으로 대세 상승세 시현
- (주가 차별화와 변동성 심화) 외국인 비중 증대와 기관투자자들의 장세 주도가 두드러져 종목간 주가 차별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변동성도 증대되고 있음

#### 시사점

- (증시 전망) 기술적으로는 향후 세자리수 주가지수 재진입이 힘들어지고, 구조적으로는 주식자본주의의 도래, 사이버 증시의 확대, 투자자들의 자산 포트폴리오 변화 등 국내 증시 전반에 걸쳐 새로운 패러다임이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
- (과제) “기업 수익 증가→주가 상승→소비 증대”라는 윗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는 증시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야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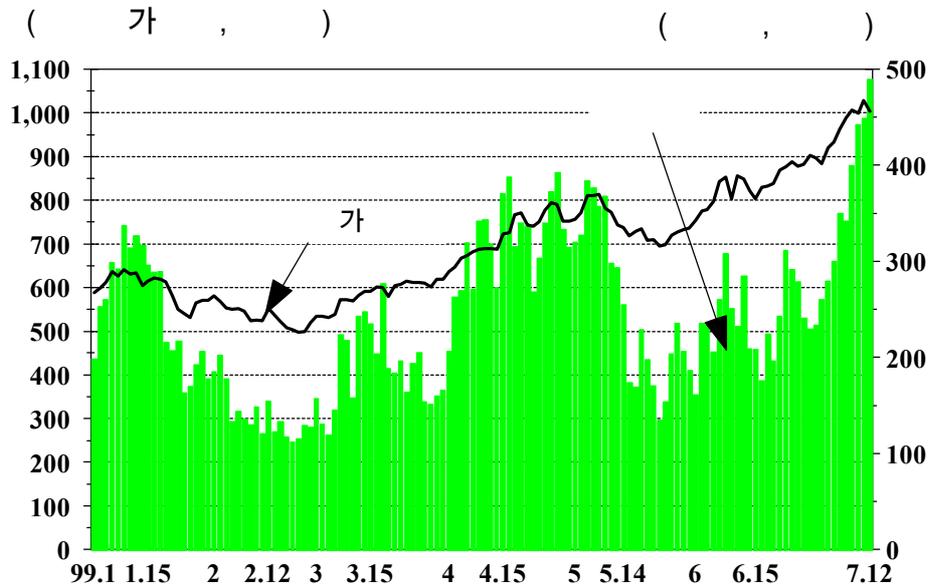
### 주가 1,000포인트대 진입의 배경과 시사점

김희성

#### 현황

- (증시 현황) 증시 관련 지표가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며 새로운 증시 구조로 탈바꿈
  - 지난 9일 주가 1,072.93, 거래량 4억 4,871만 주, 거래대금 6조 3,533억 원, 시가총액 304조 6,188억 원을 기록하였으며, 12일 현재 주가는 1,004.25, 거래량 4억 8,918만주, 거래대금 6조 6,255억 원, 시가총액은 298조 4,590억 원을 보임
  - 이는 과거 89년 4월이나 94년 11월의 주가 1,000포인트 시대와는 경기상황, 상승동력, 시장 상황 및 금리 수준 등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
  - 즉, 경기 회복 초기이며, 구조조정이 부실기업들이 퇴출된 시장 상황에서 7%대의 저금리가 유지, 증시가 질적·양적으로 확대되고 있음

< 종합주가지수와 거래량 추이 >



---

## 주가 1,000포인트대 진입 배경

- (구조조정에 대한 긍정적 평가) 구조조정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긍정적인 평가
  - 한계기업 및 금융기관들이 시장에서 퇴출 또는 매각되면서 한국 경제의 구조조정에 대하여 국내외 투자자들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,
  - 외환위기를 극복하고, 한국 경제의 V자형 경기회복을 낙관하는 경향이 있음
- (기업의 실적 호전 전망) 상장기업의 대폭적인 실적 호전 전망이 주가에 先반영
  - 기업의 구조조정과 저금리의 정착 등으로 기업의 수익성이 급격히 개선, 올 순이익 규모는 10조 원에 이르고 내년에는 15조 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됨
  - 증권업계에서는 금융업종을 제외한 상장사의 평균 자기자본수익률<sup>1)</sup>이 올 연말과 내년에 각각 8.6%, 10%대에 이르러, 시중금리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
- (증시로의 자금 유입 증대) 저금리와 간접투자시장의 확대로 증시 자금 유입이 증대
  - 여타의 자산운용수단이 제한된 상태에서 금리가 과거의 13%대가 아닌 7%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증시로의 자금유입이 급증하고 있음
  - 6월 현재 주식형 수익증권이 33조 2,795억 원에 이르고 있고 뮤추얼 펀드도 2조 원을 넘어서고 있는 등 간접투자시장의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음

## 장세 진단

- (새로운 증시 구조를 바탕으로 한 대세 상승 장세) 국내 증시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하면서 상승국면에 진입하였음
  - 완전 개방된 증시, 기업 및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으로 투명한 투자 여건, 경기 회복의 초기 국면으로 기업의 실적 호전이 두드러지며, 저금리를 바탕으로 유동성이

---

1) 세후순이익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자본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나를 나타내는 기업의 수익성 지표임

---

풍부한 상황임

- 또한 새로운 펀드들이 등장하고 사이버 증시가 대중화되면서 증시 투자의 저변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

- (주가 차별화 심화) 기업의 실적에 기초한 주가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음

- 증시 여건<sup>2)</sup>이 호전되어 대세 상승이 이어질 전망이나, 사업 전망과 경영에 관한 투명성과 실적에 따라 동일 산업내 주가 차별화는 더욱 심화될 것임

- (주가 변동 위험 증가) 장세 전망의 차이로 주가 변동이 증대되고 있음

- 단기급등에 대한 투자자들의 심리적인 부담감과 차익 실현이 점차 증대하면서 주가의 단기 변동성이 증가하고 있음
- 국내 주식 투자 포트폴리오를 보면 해외시장에 대한 분산투자가 미흡하고, 일부 종목들에 집중되어 있어 해외시장 변동에 따른 위험 노출이 심한 편임
- 특히, 외국인 증시 투자자금의 국내 유출입 규모가 5월과 6월에 각각 58억 4,100만 달러, 73억 7,300만 달러에 이르러, 국내 증시의 불안요소로 지적되고 있음

## 시사점

- (기업 및 일반 투자자) 기업은 구조조정을 통하여 경쟁력을 제고해야 할 것이며, 일반 투자자들은 간접 투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

- 기업은 주식자본주의(Stock Capitalism)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, 사업구조를 효율성과 수익성을 고려한 혁신적인 구조로 바꾸어 나가야 할 것임
- 일반투자자들은 투자 위험이 증대됨에 따라 간접투자를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음

- (금융기관) 위험 관리 능력 및 자산 운용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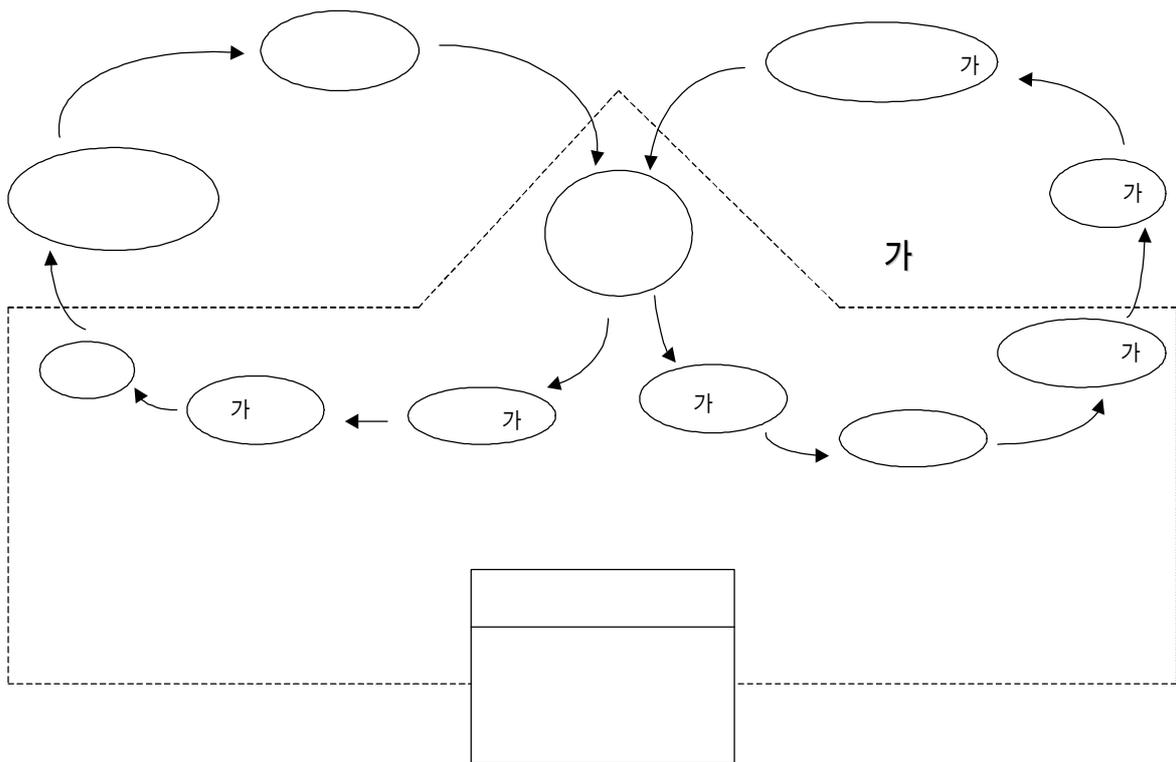
- 금융기관들은 개인 투자자들의 보유 금융자산형태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여 투자 자문 및 자산 운용 업무 등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
- 금리, 환율, 및 해외 변수들에 따라 국내 증시의 하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

---

2) 하반기 주식 수급 상황도 수요 30~37조 원, 공급 28조~3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

- 로 이에 대한 면밀한 위험관리 전략을 마련해 놓아야 할 것임
- (정부 관련 당국) 증시의 **순환 구조**를 정착시키며, **외국 자금의 국내 유·출입**을 면밀히 관찰하는 등 **증시 전반에 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**
    - 증시에서 기업과 가계의 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기업 평가 및 公示 기능을 강화하고 각종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임
    - 외국계 투자자금의 급격한 유·출입은 국내 금융시장 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, 필요한 경우 정부는 가변예치의무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등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

< 증시 자금의 순환 구조 >



(hiskim@hri.co.kr ☎ 724-4013)